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에 문화감성을 채우다

문화전당·삼성전자 문화나눔 행사 'ACC 컬처프로젝트-문화로 꿈꾸는 하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이 청소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느 때 같으면 비교적 한가한 토요일 오전이지만 2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문화전당 열람실과 체험공간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이들은 그룹별로 나뉘어 문화전당이 제공하는 '커리어 러너'(Career Runner & Learner) 프로그램에 참여해 큐레이터(curator), 아키비스트(archivist), 에듀케이터(educator) 등 문화 관련 직업을 체험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과 삼성전자(주) 광주 사회공헌센터(센터장 정광명)가 지난 19일 문화나눔 행사 '2016 ACC 컬처프로젝트 PLAY ACC-문화로 꿈꾸는 하루'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문화전당 활성화를 돕고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삼성전자(주) 광주 사회공헌센터가 후원해 마련됐다. 광주 문화기관을 대표하는 문화전당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메세나 문화를 이끌고 있는 삼성의 문화나눔 협력사업이 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공연 등 문화를 누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원초교, 지혜학교, 문흥중, 해남공고 학생 200여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전당 직업 체험프로그램 '커리어 러너'에 참여했다. 프

로그램에는 문화전당과 문화수도 광주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문화를 즐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배려가 깃들여 있다. 끼를 타고 난 미래 인재들의 감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놀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체험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예컨대 에듀케이터 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 문화관련 주제에 따라 강의내용과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으로, 각 팀별로 경험해 우수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하린(지혜학교)양은 "직업의 새로운 세계를 알게됐다. 아키비스트에 대해 전혀 몰랐으나 교육프로그램을 짜면서 어떤 직업인지 저절로 알게됐다"며 "딱딱한 학습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무척 재미있다"고 말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문화창조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 전시를 관람하고, 소통연구소 마음 연구소장 강현희 멘토의 '인생설계 및 진로모색'을 주제로 한 특강을 들었다.

문화전당과 삼성전자는 지난 10월2일에는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완성도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바리톤 김동규씨가 출연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동규씨는 직접 편곡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시작으로 가곡 '무정한 마음', 오페레타 '유포한 미망인' 중 '임술은 침묵하고', '살짜기 읊서에'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줬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소프라노'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김지현씨도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다.

같은 달 22일에도 광주지역 초등학교 200여명을 문화전당에 초청해 '문화로 노는 하루' 행사를 열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고 ACC 창·제작 어린이음악극 '행성에서 만난 미씨'를 관람했다.

방선규 문화전당장은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와 협력사업을 함께 진행해 매우 뜻깊다"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에 문화감성을 채워주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커리어 러너'(Career Runner & Learner)'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문화전당에서 일하는 전문 직업군의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curator), 문화자원을 수집·보존하는 아키비스트(archivist),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에듀케이터(educator)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김동규씨는 직접 편곡한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시작으로 가곡 '무정한 마음', 오페레타 '유포한 미망인' 중 '임술은 침묵하고', '살짜기 읊서에'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줬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소프라노'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김지현씨도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다.

같은 달 22일에도 광주지역 초등학교 200여명을 문화전당에 초청해 '문화로 노는 하루' 행사를 열었다. 참가 어린이들은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다양한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고 ACC 창·제작 어린이음악극 '행성에서 만난 미씨'를 관람했다.

방선규 문화전당장은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와 협력사업을 함께 진행해 매우 뜻깊다"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에 문화감성을 채워주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전당과 삼성전자(주) 광주 사회공헌센터가 지난 19일 주최한 '2016 ACC 컬처프로젝트-문화로 꿈꾸는 하루'에 참가한 학생들이 문화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평준 8년만의 개인전 2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봄'

중진서양화가 김평준씨가 8년만에 개인전을 갖는다. 2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 '봄'.

평소 따뜻한 시선과 모던한 감각으로 생명과 자연의 현상을 캔버스에 구현해 온 그는 이번 전시회에서 화려한 색상과 세련된 조형미가 돋보이는 '장미' 연작과 최근작들을 중심으로 약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광주 예술의 거리의 명소였던 차생원 건물을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한 갤러리 '봄'의 개관 초대전이기도 하다.

미술평론가 김중근씨는 "김씨의 작품은 다양한 색을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의 풍경들을 독특한 구도와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울림을 준다"고 말했다.

사실 김씨는 미술계에선 자유로운 감성의 드로잉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5개국 작가들이 참여한 '국제드로잉-감성의 흔적II'전(광주무등현대미술관)에 출품한 김씨의 드로잉 '도시 사람들'은 작가의 호흡과 자유로운 필치로 관람객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아름다운



'장미'

꽃을 소재로 한 근작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그의 변화된 캔버스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듯하다.

김씨는 서라벌 예대 미술학과 출신으로 지난 1988년 프랑스로 건너가 10여 년 동안 파리에서 작가로 활동했다. 재북한

국작가들의 모임인 소나무초대전(아스날 화랑), 유럽스케치전(94년), 드로잉전 등에 참가했으며 송원문화재단 초대전, 동시대 문화관 기념전, 목포대 문화관 기념전 등에 출품했다. 010-9078-18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시대의 유물 : 기록'

이정기 작가 개인전

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깨진 유리로 인간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이정기 작가가 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에서 '시대의 유물 : 기록'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존 거울조각을 불인 작품을 비롯해 평면, 설치, 입체,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우리 모든 것은 미래의 유물로 남는다'라는 기존 작업내용의 연장선에 있다. 시대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시대의 유물-수면' 시리즈는 석고판을 사람 형상으로 만든 후 거울을 붙인 작품이다. 마치 수면 위로 사람이 튀어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작품마다 다른 자세와 튀어나온 정도가 다른 점이 특징이다.

작가 개인적인 경험과 가족사를 표현하며 우리 자신들이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생산하는 주체로 당사자임을 전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개



'시대의 유물-수면'

인전 8회를 열며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2014년 전남문화예술재단 레지던시, 2003년 광주시립미술관 팔각정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지난해 제 21회 광주 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4-660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웅·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윤태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양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